

# SAMC | LAW REVISION

## 1. APTA 회원국 수입물품 관세율, 7월 1일부터 평균 33.4% 인하

올 7월 1일부터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979개 물품의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된다. 또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다라도 제조·가공 등을 거쳐 품목명이 변경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등 원산지 증명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올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ead More](#)

## 2. 물티슈 등 국민안전 관련 292개 품목 '세관장 확인대상' 지정

국민건강과 사회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해 위생용품, 드론, 전기자전거, 암호화폐 채굴기 등 292개 물품의 수출입통관 심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 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새로 지정해 총 7,382개로 확대하는 내역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고 4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ad More](#)

## 3. 반도체·평판DP 제조용 진공펌프, 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

반도체 제조용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가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HSK 개정 시 진공펌프(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의 도달진공도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들 물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앞서 「관세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금지기간 관련 내용도 고시에 반영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8일 입안 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 TRADE TREND

## 1. 中 관세 인하,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

중국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출것으로 보인다. KOTRA는 중국정부가 지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187개 항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7.3%에서 7.7%로 낮췄으며,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 600개 이상 품목에 수입관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자국 자동차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자동차 기업이 중국시장 진입 시 합자 기업 설립과 중국 지분 50% 이상, 관세 25%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Read More](#)

## 2. 美·中 무역분쟁, 우리 수출에는 제한적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2일 ‘美·中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1억 1,000만 달러 감소하고 對美 수출은 9,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ad More](#)

## 3. EU, 역외産 철강에 세이프가드 조사

EU가 수입 철강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EU 집행위가 3월 26일 관보(C111/29)를 통해 해외 수입 철강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발표했으며, 4월 15일까지 조사를 벌여 집행위가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9개월 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지 결론낼 예정이라고 4월 4일 소개했다. 이번 조사 대상 국가는 특정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제품에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자동차 내주고 철강·농축산물 얻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한·미 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미국은 철강 제232조 관세부와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우리는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부와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량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에 해당하는 쿼터(지난해 대비 74%)로 설정했다.

[Read More](#)

## 2. 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 양국 서비스산업 동반성장 계기

한·중 FTA 서비스 후속 협상을 부진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OTRA는 3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중 FTA 서비스 후속 협상을 계기로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과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 산업구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서비스업 비중의 급증이라며, 중국의 GDP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012년 45.3%에서 2017년 51.6%로 늘어났으나 2차 산업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명확해진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의 절차가 명확해진다. 인증신청은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 모두 가능하며, 특별긴급관세 조치 적용 대상도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 입법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